

누가복음 Luke 14-15  
Tape #C2535  
By Chuck Smith

Shall we turn in our Bibles now to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chapter 14.

The fourteenth chapter involves an invitation for Jesus to come to a supper on the Sabbath day and of the things that transpired at that supper, and the subsequent exchange between Jesus and the people as Jesus talked to them concerning etiquette and concerning the demands of the kingdom.

성경의 누가복음 14장을 펴보십시오.

14장은 안식일에 만찬에 예수를 초청한 것과 만찬에서 일어난 일들과 예수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주고 받은 대화와 예의 및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의 사람들에 관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So it came to pass, as he went into the house of one of the chief Pharisees to eat bread on the sabbath day, that they watched him (14:1).*

It is interesting to me that Jesus accepted the invitation. He knew that they were out to get Him. It seems to me that Jesus was always open to an invitation to eat, going so far as inviting Himself to Zacchaeus' house. "Come on down Zacchaeus. I want to come over to your house and eat." And finally in Revelation, standing at the door and knocking, waiting for anyone to open so that He can come in and eat. "And if you will open the door I will come in and I will eat supper with you." As we this morning were talking about the significance of eating in that culture, becoming one, how Jesus desires to be one with us.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14:1).*

예수께서 초청을 받아드리신 것이 재미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그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보기에 예수께서는 식사 초대엔 항상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가는 것을 자청하셨을 정도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너희 집에 가서 식사하기를 원하노라" 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고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사회와 문명권에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며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Now the Sabbath meal was different from other meals in that all of the food had to be prepared before the Sabbath. You weren't to kindle any fire. If you were to have anything that was hot it had to be hot before the Sabbath. And somehow there had to be ways to maintain it being hot. Now in those days they had definite rules of those things that you could not do to keep food hot and things you could do to keep food hot, but there was a kosher way of keeping your food hot even that they even had developed for the Sabbath day.

안식일에 먹는 음식은 다른 때의 음식과는 다르며 그것을 안식일전에 준비해 놓은것 입니다. 불도 붙이면 안됩니다. 무슨 음식이 더워야하면 안식일 이전에 데워 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뜨겁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당시엔 음식을 뜨겁게 할수 없는 방법과 뜨겁게 할수 있는 방법들을 구분하는 법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일찌라도 그들이 개발한 음식을 뜨겁게 유지하는 깨끗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Today they plug in before the Sabbath begins. Their hotplates and their water for their coffee (they use instant coffee on the Sabbath day) all have to plug it in. They can't fill the pot once the Sabbath is come. But once it is plugged in, you can pour it out of the pot into your cup and make your instant coffee. That doesn't constitute work. Just don't pour any water into the pot to heat it on the Sabbath day. You have got to have that going before the Sabbath day. And you can't turn the switches on. You just have to have it plugged in and going before the Sabbath day comes. So they still have some interesting little rules for the Sabbath day.

안식일이 시작되기전에 오늘 전기를 끕니다. 그들의 철판과 커피를마시기위해 물 (안식일에는 즉석커피를 사용 합니다) 이랑 모든것을 전기로 쪄아 놓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냄비에 물을 부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기를 한번 켜놓으면 물주전자에서 물을 당신의 컵에 부어 커피를 만들수있습니다. 그것은 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물을 데우기 위하여 물 주전자에 물을 붓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해야하며 안식일이 되면 전기 스위치도 틀지 못합니다. 안식일이 되기전에 전기를 켜아서 그냥 버려둡니다. 그들은 아직도 안식일에 관한 재미있는 몇가지 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If you want to go out to eat, you cannot pay with cash, but you can pay with credit cards on the Sabbath day. To pay with cash would violate the Sabbath, but to pay with a credit card, they have this unfortunate concept that so many people have about credit cards and that is you are really not paying. That is a dangerous thing.

외식을 하려면 현금으로는 값을 치룰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크레딧 카드로는 값을 치룰수 있습니다. 현금을 내는것은 안식일을 범하는것이지만 크레딧 카드로는 할수 있습니다. 그들이크레딧 카드를 쓰면 실제로 값을 치루지 않는다는 그릇된 개념을 가집니다.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So the Sabbath day meal was different. And they were watching Jesus. Now it seems that they were watching Him because there was a setup.

*And, behold, there was a certain man before him which had the dropsy. And Jesus answering spake the words to the lawyers (14:2-3)*

그래서 안식일에 먹는 음식은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를 쳐다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를 지켜 보는듯합니다.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14:2-3).*

Answering what? It doesn't say they asked Him any question, but realizing, no doubt, that this whole thing was a set up. He was invited to eat on the Sabbath day to break bread with them, and here right before Him they have set this man with this disease of dropsy.

And so Jesus answering them, realizing that it was a setup,

*spake to the lawyers and the Pharisees, and he said, Is it lawful to heal on the sabbath day? And they held their peace (14:3-4).*

They didn't answer Him.

무엇을 대답할것입니까? 성경에는 그들이 그에게 질문을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심의 여지도 없이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모든것을 조작해 놓았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안식일에 그들의 식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의 앞에 고창병든 한 남자를 데려다 놓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함정을 놓았음을 아시고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14:3-4).*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And so he took, and healed him, and let him go; And he answered them, saying, Which of you shall have an ass or an ox that has fallen into a pit, and will not immediately pull him out on the sabbath day? And they could not answer him again to these things (14:4-6).*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14:4-6).

Now, under the law they did have a provision that if your donkey or ox would fall into a pit on the Sabbath day, you could pull it out. They did have many open wells, so it was not uncommon for a donkey or an ox to fall into a pit. So Jesus brought up their own law to them, and they could not answer Him.

So then He dealt with them concerning etiquette.

율법에 만일 나귀나 소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낼수있도록 정한 조항이 있습니다. 열려있는 우물이 많았으므로 나귀나 소가 구덩이에 빠지는것은 자주 있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법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대답할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과 예의에 관한것을 말씀하셨습니다.

*And he put forth a parable to those which were bidden to the feast, when he marked how they chose out the chief rooms (14:7);*

Usually they had at these feasts a table with three pillows around it. They were called tricliniums. And they would usually sit the people three at a table, and the middle pillow would be the place of honor at that table. And say you were going to invite nine guests. You would have three tables set up in this triclinium, and at each of the tables you would have the center pillow for your guest of honor. And of course, they would sit and sort of recline, and that is why they are called tricliniums. They would recline on these pillows and eat in sort of a reclining position.

*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14:7);*

통상 이러한 잔치를할때 상을 놓고 그 주변에 베개를 세개쯤 놓아둡니다. 그것을 삼방에 놓게된 안락의자가 붙은 식탁이라고 부릅니다. 통상 세사람이 식탁에 앉으며 중간 베개는 그 상에서 상좌가 되는것입니다. 아홉 사람을 초대하려면 이러한 상이 세개가 있어야하며 각 상의 중간 좌석은 주빈을 위한 자리가 됩니다. 물론 그들이 앉지만 비스듬히 놓게되며 그래서 삼방 안락의자가 붙은 식탁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베개들은 기울일수 있으며 기울어진 자세로 식사합니다.

So, Jesus was watching how they were jockeying for the best positions, for the places of honor, for the places of note, for this business of trying to get into the place of prominence. So He said,

*When thou art bidden of any man to a wedding, don't sit down in the highest room; lest a more honorable man than you has been bidden to the feast; And those that*

*bade thee and him come and say to you, Give this man your place; and you with shame will have to go to the lowest room (14:8-9).*

예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교묘하게 움직여 가장 좋은 자리 즉 상좌를 차지하는지를 지켜 보고 계셨습니다. 으뜸가는 자리 즉 눈에 띄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 주라 하리니 그 때에 네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14:8-9).*

It is an embarrassing situation. You sat at the head table, but you don't belong there. So they come up and say they are sorry, but they don't have any place for you at that table, so you better take a table in the back. And everybody sees you leave the head table and head for the table in the back.

*But when you are bidden, go and sit down in the lowest room; and when he that bade thee comes, he may say unto thee, Friend, come on up higher: then you will have honor in the presence of those that sit at meat with thee. For whosoever exalteth himself shall be abased; and he that humbleth himself shall be exalted (14:10-11).*

그것은 난처한 처지입니다. 당신의 자리가 아닌 상좌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당신에게 와서 미안하지만 그 상에는 앉을 자리가 없으니 뒷좌석에 가라고 한다면 상좌를 떠나서 뒷좌석으로 가는 당신을 모두가 쳐다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 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4:10-11).*

I think that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greatness is humility. Some of the greatest people have been very humble people. I think that one of the most humbling things is to have God use your life. For you know it is not you and you know you are not worthy. But if you seek to exalt yourself, the law of the Lord, you will be abased. But he that will humble himself, the Lord will lift him up.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 중의 하나가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들은 대단히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낮추도록하는 것 중의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쓸만한 인물도 아니고 가치도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당신이 스스로 높이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 당신은 낮아지지만 당신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Then said he also to him that invited him, When you make a dinner or a supper (14:12),*

Now he is turning on the host.

*When you make a dinner or a supper, don't call your friends, and your brothers, and your family, or your rich neighbors; in order that they might bid you again, and recompense you for the invitation. But when you make a feast, call the poor, the maimed, the lame, the blind: And you will be blessed; for they cannot recompense thee: but you will be recompensed at the resurrection of the just (14:12-14).*

These are interesting rules of the kingdom.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14:12),

이제 그는 주인에게 방향을 돌립니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고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14:12-14).

*And when one of them that sat at meat with him heard these things, he said unto him, Blessed is he that shall eat bread in the kingdom of God (14:15).*

I think that someone at the table got the flash of light as Jesus began to talk about how in the kingdom there is going to be an equality. There won't be the exalting of one man above another. There won't be important people and unimportant people, but we are all one in Christ Jesus. And we will all share together in the glory and in the honor in the kingdom. And this man got a flash of light in the kingdom and he said,

*Blessed is the man that shall eat bread in the kingdom of God (14:15).*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14:15).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동등하게 될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실때 상에 앉았던 자에게 깨달음이 온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는 한 사람이 다른사람보다 더 높지 않습니다. 거기엔 중요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구별이 없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존귀를 다 함께 나눌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이 오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14:15).

And then Jesus gave a parable unto them. You see, all of these have to do with being invited to dinner, going to dinner, because they are sitting at this dinner, or at this Sabbath dinner with the Pharisee.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 하셨습니다. 이 모든것들이 만찬에 초대받는것과 관련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다 만찬에 초대 받아 바리새인들과 함께 안식일에 만찬석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Then he said unto him, There was a certain man which made a great supper, and he invited many: And sent his servant at supper time to say to those that were invited, Come; for dinner is ready. And they all with one consent began to make excuse. The first said, I have bought a piece of ground, and I better go see it: I pray thee you will have me excused. And another said, I have bought five yoke of oxen, and I go to prove them: And I pray thee you'll have me excused. And another said, I have married a wife, and therefore I cannot come. So that servant came, and showed his lord these things. Then the master of the house being angry said to his servant, Go out quickly into the streets and lanes of the city, and bring in here the poor, the maimed, the halt, and the blind (14:16-21).*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으매 불가불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14:16-21).

These are the ones that Jesus told the fellow he should have invited anyhow.

*And the servant said, Lord, it is done as you have commanded, and still we've got more room. And the lord said to the servant, Go out into the highways and hedges, and compel them to come in, that my house may be filled. For I say unto you, That none of those men which were bidden shall taste of my supper (14:22-24).*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종에게 초청하라고 하셨던 사람들입니다.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14:22-24).

In this parable I believe that the one who has made the invitation and inviting to the supper is really none other than God. And the reference is to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And these are some of the excuses that people give for not coming to Jesus Christ.

The first man's excuse was sort of a commercial excuse: "I bought a house and I need to go take a look at it." Pray tell, what kind of a fool buys a house without looking at it? He was busy in commerce.

이 비유에서 만찬에 초대하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며 이 잔치는 어린양의 혼인 잔치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그들 자신의 변명입니다.

첫째 사람의 변명은 상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집을 샀는데 그집에 가서 잘 조사해보아야 합니다." 어떤 바보가 조사도 하지않고 집을 삽니까? 말씀 해보세요. 그는 상업으로 바쁩니다.

The second man is busy in his labors. It takes precedence over the kingdom. "I bought five yoke and I need to prove them." Again, what man would buy five yoke of oxen without first testing them? Which of you would buy a car without driving it around the block?

Then the third said that he had just married a wife and couldn't come. Why didn't he bring his wife?

둘째 사람은 그의 노동으로 바쁩니다. 노동이 천국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가 소 다섯마리를 샀는데 시험해보아야해." 또 소 다섯마리를 시험해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중에 시험 운전도 안해보고 차를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다음 셋째 사람은 갓 결혼했으므로 올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 아내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You notice that they all began to make an excuse. And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excuses and reasons. Sometimes you can make an excuse when you don't have any real reason for it. But I would warn you as Benjamin Franklin said, "The man who is good at making excuses is seldom good for anything else."

보시다시피 모두가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변명과 변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뚜렷한 이유가 없을때 변명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을 빌어 경고합니다, "변명을 잘하는 사람은 그것외에 잘하는것이 별로없다" 고.



They began to make excuses for different reasons, so the lord said to go out into the highways and bring in the poor, the maimed and the halt. Remember to Jesus, He fulfilled the prophecy to the poor, the gospel is being preached. And still there was room, so he was to go out into the highways and hedges and compel them to come in, and the gospel was being preached compelling men to come into the kingdom of God.

그들은 다른 이유를 들어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큰길로 가서 가난한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자를 데려 오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예언을 이루시는 예수를 기억 하십시오. 그러나 여전히 자리가 남아 있었으므로 주인이 종에게 큰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강권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오도록 복음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Now at this point he probably left the supper, for we read,

*And there went great multitudes with him: and he turned, and said unto them*  
(14:25),

Having left the house, the people were outside waiting for Him. At this point great multitudes of people were attracted to Him and were following Him and listening to Him. And He is on His way towards Jerusalem, but they think He is on His way towards Jerusalem in order to overthrow the Roman government and to establish and set up His kingdom. And that is why they are being attracted. That is why the multitude is coming. They think that the kingdom is going to come now immediately, and James and John are saying, "Lord, can I sit on the right and left hand?" and all of this jockeying for position was going on. But they don't understand. He is not going to Jerusalem to overthrow the Roman government. He is going to Jerusalem to be put on a cross.

이 때쯤 주인이 만찬에 참석하려고 떠난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그분과 함께 갈때에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14:25)

그가 집을 나갔을때 사람들은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무리들이 그에게 마음이 끌려 그를 따라와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그의 나라를 건설하시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그에게 쏠린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 무리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나라가 당장 설립되리라고 생각했으며 야고보와 요한도 "주여, 우리가 주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을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던것입니다. 예수께서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예루살렘에 가시는것이 아닙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 가시는것입니다.

You cannot follow Christ just because it is a popular movement. There is a shallowness and a danger to popular spiritual movements. The Jesus Movement was sadly weakened by the endeavors to commercialize the thing and to popularize the thing. And the Jesus Movement parades and banners were fade aspects.

단순히 인기있는 운동이라고해서 그리스도를 따를수는 없습니다. 인기있는 영성 운동은 천박하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수운동은 슬프게도 그것을 상품화하고 인기있는것으로 만들려는 노력 때문에 약화되었습니다. 예수운동의 행렬과 기치를 올리는것은 시들어가는 모습 이었습니다.

In following Christ, you just don't get on the bandwagon. It is just not joining because everybody is doing it, or it is the in thing to do. This was at that time the in thing. Multitudes were following Him. And because there is a danger in this, He turns to the multitudes and He becomes extremely severe in His words. He is really more severe than I would like Him to be, for He said,

*If any man come to me, and hate not his father, and mother, and wife, and children, and brethren, and sisters, yea, and his own life also, he cannot be my disciple (14:26).*

그리스도를 따를때 그냥 시작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한다고해서 그냥 따라하거나 그것이 해야할일이라고 생각해서 연합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는 할일일테죠. 그래서 무리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이 것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주께서 군중들을 향하여 돌이키셔서 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제가 생각했던것보다 훨씬 더 엄하신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14:26).*

I am not going to be popular, being acclaimed as king. I am going to be crucified. There is a real cost if you are going to come after Me. You better count the cost. You better measure it.

Now, don't misunderstand Jesus and think that I have got to hate my father, and my mother, because that is just the opposite of what the gospel teaches.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And if say I love God and hate my brother, I am a liar and the truth is not in me. How can I love God who I haven't seen and hate my brother who I have seen? Then what does Jesus mean, unless you hate your father, mother, brothers and so forth? That is in the language a comparative.

내가 왕으로 되어 인기가 높아지려는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에 죽으려는것이다. 나를 따르려면 치뤄야할 댓가가 있다. 그 비용을 계산해보고 재어보는 것이 좋을것이다.

예수를 오해하지 마시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내가 미워해야한다는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이 가르치는것과 정 반대가 되기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형제를 미워하면 나는 거짓말쟁이요 진리가 내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보는 내 형제를 미워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께서 네 아버지와 어미를 미워하지 않으면이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비교격 언어로 쓴것입니다.

Your love for Jesus Christ must be supreme. It must be greater than your love for your family, your home or yourself, because it may cost you all of these things to follow Jesus Christ. And for many of those people it did cost all those things. Following Christ did cost some of them their families, their family relationships. For they were ostracized by their families when they made their commitment to Jesus Christ. And the same is true today. Many people have found it quite costly to follow Jesus Christ. It cost them their family relationships. But Jesus said if you are not willing to give up these family relationships, you can't really be My disciple. You have got to love Me more than you love any other relationship that you have. Your love for Me must be supreme and every other love must be subservient to your love for Me.

예수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은 최고의 것이어야합니다. 그것은 가족이나, 가정이나, 당신 자신을 위한 사랑 보다 더 큰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이 모든것 전부를 희생하는 댓가를 치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에는 가족이나 가족관계의 어느 정도 희생이 따릅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탁하였을때 가족들이 그들을 집에서 쫓아냈기 때문 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위해 많은 댓가를 치뤄야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관계를 희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족관계를 포기하기를 즐겨하지 않는자는 나의 제자가 될수없다.” 네가 가진 어떤 관계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한다.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 최고가 되어야하며 다른것에 대한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에 종속되어야한다.

Then He went on to say,

*And whosoever doth not bear his cross, and come after me, cannot be my disciple*  
(14:27).

I am not going to be crowned as king of the world. I am going to bear a cross. I am going to be crucified, and if you are not willing to take up your cross you can't really be My disciple. If you really want to follow Me and be My disciple, it can involve a cross and you better consider that.

그리고나서 주께서 길을 가시며 말씀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14:27).

내가 세상의 왕이 되려는것이 아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한다. 나는 십자가에 죽으려고 한다.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기를 원치않으면 진실로 나의 제자가 될수없다. 너희가 진실로 나를 따르며 제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십자가를 포함해서 잘 고려해야 할것이다.

Jesus is deliberately laying out the terms for discipleship and they are not soft, easy, comfortable terms. They are harsh. They are severe. And it is important that you count the cost, the cost of discipleship.

Then Jesus gives a couple of parables in which there is that emphasis of counting the cost.

예수께서 신중히 제자가 되는 조건들을 나열하셨습니다. 그것들은 부드럽고 쉬우며 안위한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가혹하고 엄중한것들입니다. 제자가 되는데 따르는 댓가를 계산하는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희생의 값을 계산하는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두 가지 예화를 들려 주셨습니다.

*For which of you, intends to build a tower (14:28),*

This is probably one of those towers that they built out in the middle of their vineyards, which are so common even to the present day in that country.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찐대 (14:28),*

이것은 아마도 그들의 포도원 한가운데 세운 망대 중의 하나인것 같습니다. 그 나라에는 오늘날에도 그러한 것들은 예사로 있는 것입니다.

The people generally lived in the cities, but they had their farms in the countries. During the spring, summer, and fall seasons they would move out of the cities and into these towers that were built out in the middle of their orchards, or vineyards. These towers had the living quarters in the first level, but then you can go up into the upper level, and from the tower you can look over and watch the vineyard to make sure that no one is coming in and ripping you off. They were just towers for the protection for the vineyards. So He is probably referring to one of these vineyard towers.

대 부분의 사람들은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농장은 시골에 있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철에 그들은 도시를 떠나 과수원이나 포도원의 중앙에 망대를 지워 거기서 생활합니다. 이러한 망대들은 아랫층은 생활하는곳이며 윗층에 올라가 거기서 도둑이 들어와 농작물을 훔쳐 가지 못하도록 감시할수 있는곳입니다. 그것들은 포도원을 지키기 위한것일뿐 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것은 이 포도원의 망대를 가리키는것 같습니다.

*Which man of you, who intends to build a tower, doesn't sit down first, and counts the cost, whether he have sufficient to finish it? Lest haply, after he hath laid the foundation, and is not able to finish it, all those that see it begin to mock him, saying, This man began to build, and wasn't able to finish (14:28-30).*

Count the cost. It is important. Don't just jump in. He is not really seeking to create a popular movement. He is seeking to thin the crowds of those that were following. Count the cost.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편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14:28-30).*

비용을 계산하라.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뛰어들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인기있는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주를 따르는 소수의 무리를 찾고 계십니다. 비용을 계산 하십시오.

*What king, going to make war against another king, doesn't sit down first, and consult whether he be able with ten thousand to meet him that comes against him with twenty thousand? Or else, while the other is still a great way off, he sends an ambassadors, and desireth conditions of peace. So likewise, whosoever he be of you that forsaketh not all that he has, he cannot be my disciple (14:31-33).*

*또 어느 임금의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찌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14:31-33).*

Now, you count the cost. Unless you are willing to forsake everything you can't be My disciple. Unless you are willing to take up your cross, you can't be My disciple. Unless you love Me supremely, you cannot be My disciple. The terms of discipleship are harsh. They are severe. And it is wrong when people tell you just accept Jesus and you are not going to have any more problems. Listen, many times when you accept Jesus your problems are just beginning. It is not easy. It is not going to be easy. The Lord doesn't say it is going to be easy. He said it is going to be tough and you better sit down first and count the cost. You better not get started in it if you can't finish it, or are not willing to finish it. You need to make an accounting here and determine whether or not you are really willing to pay the price to go all the way through,

because unless you are willing to forsake everything, really, you can't be My disciple. These are heavy, hard words.

비용을 계산 하십시오. 모든것을 버리기를 싫어한다면 내 제자가 될수 없느니라. 당신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 싫어한다면 내 제자가 될수 없느니라. 나를 최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수 없느니라. 제자가 되는 조건은 엄격합니다. 그것은 가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더 이상 문제가 없으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틀렸습니다. 잘 들어 보세요.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주께서 쉬워지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니다. 어려워질테니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해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끝낼수 없거나 끝내지 않으려면 시작하지 않는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앉아서 계산해야하며 그후에 끝내기까지 가는 비용을 치를지 아니 할지를 결정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모든것을 기꺼이 버리지 아니하면 그의 제자가 될수 없기때문입니다. 이것은 중하고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Then He said,

*Salt is good: but if the salt have lost its tang, who will use it for seasoning? It is neither fit for the land, nor for the dunghill; but men will cast it out. He that has ears to hear, let him hear (14:34-35).*

In those days salt was used for three basic things. Salt was used, number one, as a preservative when they would butcher. They would roast the meat right away and the meat that they didn't roast they would salt because they didn't have refrigeration. Salt has an antiseptic type of an effect. It kills the bacteria on the surface of the meat and preserves the meat.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 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찌어다 하시니라 (14:34-35).*

그 당시에 소금은 세가지 기본적인것에 사용하였습니다. 첫째로 소금은 푸줏간에서 방부제로 사용하였습니다. 고기를 당장 굽거나 그렇지 않으면 냉장고의 시설이 없었으므로 소금을 넣어서 처리했습니다. 소금은 방부제의 효과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고기의 표면에 있는 박테리아를 죽이며 고기를 상하지 않도록 보존합니다.

Salt was used as a seasoning to flavor the food, like we use salt today—add a little zing to the food, to the taste. Foods without salt are flat. Just a little salt really makes a difference. Every once in a while when we were kids, Mom would forget to put the salt in. Potatoes without salt, mashed potatoes are flat. It is amazing what a little salt will do for mashed potatoes. We are the salt. Salt is good. But if it has lost its savor it is not good.

소금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소금을 활력소로 맛을 더내려고 첨가하는것처럼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로 사용하였습니다. 소금이 없는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소금을 조금만 치면

아주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릴때 때로는 엄마가 소금치는것을 잊어버리셨습니다. 소금이 없는 감자, 짓이긴 감자는 맛이 없습니다. 짓 이긴 감자에 약간의 소금을 치면 놀랍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좋은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맛을 잃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Jesus in the Sermon on the Mount talked about salt in an earlier part of His ministry. He said,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Matthew 5:13). Again, talking about if the salt has lost its savor wherewith would it be salted, therefore it is good for nothing but to be cast out and trodden under the foot of man. Salt is good if it is tangy. If it isn't, it is worthless.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는 그의 초창기 사역에서 소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마 5:13) 고 하셨습니다. 다시 소금이 맛을 잃어면 어디에 쓰리요? 아무 쓸데 없어 밖에버리워 사람에게 밟힐뿐이나라. 소금의 맛이 짭으면 좋고 그렇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The third purpose for salt was to put it on the path to kill the vegetation so that they would keep the paths clear from vegetation by just putting salt on it. The salt would destroy the vegetation. It was a weed killer.

소금을 쓰는 셋째 목적은 소금을 길에 뿌려 풀을 죽이고 길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것입니다. 소금은 채소를 죽입니다. 그것은 잡초를 죽이는것입니다.

You as a child of God should have a preserving effect in the society in which you live. Our rotten society testifies against the church. It bears witness against the church. But you should have sort of a zingy effect where ever you go. You should add zest and flavor because of your walk with Jesus Christ.

Salt has another capacity of making people thirsty. And you should be creating a thirst in people.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를 보존하는 효과를 가져야합니다. 우리가 사는 부패한 사회는 교회를 반대하는 증언을 합니다. 사회는 교회를 반대하지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맛을내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므로 맛과 향기를 더해야합니다.

소금에는 또한 사람들이 목마르게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목마르게 할수 있어야합니다.

## Chapter 15

*Then drew near to him all the publicans and sinners to hear him. And the Pharisees and scribes murmured, saying, This man receives sinners, and eats with them (15:1-2).*

Notice the four groups that had gathered divided into two categories. First of all, the publicans and sinners. Publicans were tax collectors, the outcast of that society, one of the most hated persons in the community. They were considered by the Jews to be traitors and quislings. And they were always classified with sinners.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15:1-2).*

네 그룹이 모여서 두 부류로 갈라진것에 유의 하십시오. 첫째로 세리들과 죄인들입니다.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로써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며 그 지역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반역자나 매국노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So the publicans and the sinners had gathered to hear Jesus. It is amazing that many of the publicans were attracted to Jesus. Matthew was a publican called to be a disciple. He left his receipt of customs and followed Jesus. Zacchaeus was a publican. And after his encounter with Jesus, he said, "Behold, I will take half of my goods (they were always wealthy people) and give it to the poor. And if I have taken fragrantly from any man, I will restore to him twofold." Jesus said,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The publicans were attracted to Jesus as were the sinners, because He had a message of hope for them. They gathered to hear. But the others, the Pharisees and the scribes, they gathered to find fault. They were looking for things by which they might accuse Jesus. They were waiting for a slipup. They were waiting for some mistake so that they could pounce upon it and accuse Him. So they began to say, murmuring,

*He receives sinners, and eats with them (15:2).*

그래서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많은 세리들이 예수에게 끌린것이 놀랍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으나 제자로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관세 받는것을 떠나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그들은 항상 부유했습니다)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죄인들이 예수에게 끌린것같이 세리들도 그러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그들을 위한 소망의 멧세지를 가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 들과 서기관들은 약점을 찾으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송사할만것을 찾으려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잘못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맹렬히



비난하며 송사할만한 과오를 범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15:2).*

They thought they were saying something horrible in condemning Him, but in reality, they were proclaiming a glorious gospel. Jesus receives sinners and you can become one with Him.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정죄하면서 그들이 아주 나쁜것을 말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던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받아 들였으며 당신도 주님과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John wrote, "That which we have seen and heard declare we unto you, that you might have fellowship with us: and truly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His Son Jesus Christ." He receives sinners and He eats with them. He becomes one with them. He dips in the same sop with them. He eats the same bread with them. He is identifying with them. Yes, He does. Thank God He does, and because He does there is hope for every one of us.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귄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귄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고 기록했습니다. 주께서 죄인을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잡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주께서는 음식도 그들과 함께 짚어 잡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같은 떡을 잡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과 같은 신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주께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감사 합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So, there were those that were hearing Him, desiring to hear Him. And there were those who were seeking to find fault with Him, looking for something to condemn.

그래서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고 듣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을 찾아 내어 그를 정죄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Now, what should have been if they were truly righteous men, the Pharisees and the scribes? What should be their attitudes when sinners were responding to the gospel? What should be the reaction if we see sinners saved? I oftentimes hear people criticize Billy Graham and his campaigns. You see hundreds of people flowing forward to accept Jesus Christ, and they say, "Yes, but a lot of them don't stick." They are sour apples, rather than saying, "Bless God! Look at that. Praise the Lord," and rejoicing that all of these people are accepting the Lord. Instead, they are looking for something to find fault in. They say, "He preaches a cheap gospel."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말로 의로운 사람들이라면 어떠했을까? 죄인들이 복음에 반응을 보일때 그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죄인이 구원 받는것을 볼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할까? 나는 종종 빌리 그라함과 그의 집회를 비평하는 말을 듣습니다. 보시다시피 수백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물밀듯 나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래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안 붙어있지않는걸요” 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송축하세, 저것 좀봐, 하나님께 찬양하세” 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주를 영접하러 나오는것을 기뻐하는 대신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디서나 약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값싼 복음을 전한다” 고 합니다.

When the hippies were coming to Jesus by the hundreds, as I was going across the country, I would have pastors come up to me and say, “I saw pictures of your baptisms at Corona Del Mar, but when are they going to cut their hair?” Rather than saying, “I saw the pictures, and my, a thousand young people being baptized, how glorious. Bless God; that is glorious. That’s thrilling!” They have to pick on something and they can’t really rejoice that the Lord receives sinners. But instead, they are sour apples over it. Jealous or whatever.

내가 미국을 횡단하는동안 수 백명의 히피들이 예수께로 나왔을때 많은 목사들이 나에게 와서 “코로나 델마에서 당신이 침례식하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 머리를 자르려는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침례식하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굉장 하더군요. 일천명의 젊은이들이 침례를 받고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참으로 영광 스럽습니다.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당연할줄 압니다. 그 사람들은 무언가 꼬집어 내야하고 주님이 죄인을 받으시는것에 대한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입술이 씹쓸하고 시기로 가득차 있습니다.

*And so Jesus spoke this parable unto them (15:3),*

Unto who? Unto the Pharisees and scribes, because of their sour apple remark.

He said,

*What man of you, you have a hundred sheep, and you lose one of them, will you not leave the ninety-nine in the wilderness, and go after that which is lost, until you find it? And when you have found it, laid it upon your shoulders, rejoicing. And when he comes home, he calls together his friends and his neighbors, and he says unto them, Rejoice with me; for I have found my sheep that was lost (15:4-6).*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15:3)*

누구에게 말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불평을 했기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 하시기를,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15:4-6).

So when you find the lost sheep there is the rejoicing. There is the rejoicing in the neighborhood. "Rejoice, I have found the lost sheep."

And then Jesus said unto you,

*I say unto you, that likewise joy shall be in heaven over one sinner that repents, more than ninety-nine just persons, who don't need to repent (15:7).*

너희가 잃은 양을 찾으면 기뻐하리라. 이웃사람들도 기뻐하리니 "즐기자, 내가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5:7).*

So while the guys down here are saying, "When are they going to cut their hair?" The angels are up having a whoopee time rejoicing that the lost has been found. Joy in heaven.

*Either what woman has ten pieces of silver, and she lose one piece, does not light a candle, and sweep the house, and seek diligently till she find it? And when she had found it, she called her friends and her neighbors together, saying, Rejoice with me; for I have found the piece which was lost. Likewise, I say unto you, there is joy in the presence of the angels of God over one sinner that repents (15:8-10).*

그 사람들이 여기에 내려와서 "저들이 언제 이발할건가요?" 라고 말하는 반면에 하늘에서는 잃은 자를 찾은것으로 인해 기뻐할것입니다.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15:8-10).*

Again, the natural response to finding that which is lost is rejoicing. The Lord said that there is joy in heaven over just one sinner who repents.

*And he said, A certain man had two sons: And the younger of them said to his father, Father, give me the portion of goods that falleth to me. And so he divided unto them his living (15:11-12).*

다시 말하지만, 잃은것을 찾으면 그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은 즐거워 하는것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그로 인해 기뻐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15:11-12).

Now, under the law when there were two sons, the older son received two thirds of the inheritance and the younger son received one third of the inheritance. That was just the law. And many times if a father wanted to retire, he would divide the inheritance to the sons before his death. It would automatically belong to the son after the death of the father. But this boy had the audacity to come his dad and say, "Dad, I would like my inheritance now." So the father divided the inheritance.

두 아들이 있을때 율법을 따라 장자는 유산의 삼분의 이를 받고 둘째는 유산의 삼분의 일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법이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아버지가 은퇴하려고 한다면 그가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죽고난 후에는 자동적으로 아들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뻔뻔스럽게도 그의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내 유산을 지금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And not many days after the younger son gathered all together, and took his journey into a far country, and there he wasted his substance with riotous living. And when he had spent everything, there arose a mighty famine in that land; and he began to be in want. And he went and joined himself to a citizen of that country; and he sent him into his fields to feed swine (15:13-15).*

This was a job forbidden to the Jew. "Cursed is the man that feeds the swine."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5:13-15).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일입니다. "돼지를 먹이는자는 저주를 받을찌어다."

*And he would fain have filled his belly with the husks that the swine did eat: and no man would give to him. And when he came to himself, he said, How many hired servants of my father's have enough bread that they could spare, and yet I'm dying of hunger! I will arise and go to my father, and will say unto him,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before thee, and am no more worthy to be called your son: but make me as one of your hired servants. And he arose, and he came to his father. But when he was yet a great way off, his father saw him, and had compassion, and ran, and fell on his neck, and kissed him. And the son said unto him,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in thy sight, and am no more worthy to be called thy son. But the father said to his servants, Bring forth the best robe, and put it on him; and put a ring on him [the family signet ring], and put shoes on his feet (15:16–22):*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군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군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15:16-22):

Shoes on the feet were significant, because the slaves were never given shoes, only the family members, the son. Slaves were never given shoes by their masters. That is why in that old Negro spiritual that came out of the slave days, “You gotta shoes, I gotta shoes, all God’s children got shoes. When we get to heaven gonna put on our shoes.” I am not going to be a slave any more. I am a son. I am a child of God. And that hymn looked forward to that day when they would have shoes. They would be acclaimed the sons of God in that heavenly kingdom. That was just one thing about slavery, you never gave your slave a pair of shoes.

신발을 신었다는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거나 가족만 신발을 신을뿐 종들에게는 신발을 주지 않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는 절대로 신발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예시대에 흑인 영가가 나왔습니다, “신발을 가져야돼, 내겐 신발이 있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발이 있어야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신발을 신을거야.” 나는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을거야. 나는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그것이 그들이 신발을 갖게될 그날을 고대하는 찬송입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것을 환호 갈채할것입니다. 그것은 노예에 관한 단 한가지일 뿐입니다. 종에게는 신발 한켄레를 주지 않습니다.

So the son said, “Hey, I am not worthy to be called your son, just a servant.” The dad didn’t even let him finish the speech. He said, “Put the shoes on him.”

*And bring hither the fatted calf, and kill it; and let us eat, and let’s be merry: For this my son was dead, and is alive again; he was lost, and is found. And they began to be merry. Now his elder son was in the field: and as he came and drew nigh to the house, he heard the music and saw the dancing. And he called one of the servants, and said what’s going on. And he said unto him, your brother has come home; and your father has killed*

*the fattened calf, because he has received him safe and sound. And he was angry, and would not go in: therefore his father came out, and entreated him. And he answering said to his father, Lo, these many years I have served thee, and I didn't transgress at any time your commandment; and yet you never gave me a kid, that I might have a party with my friends: But as soon as this your son was come, which has devoured your living with prostitutes, you have killed for him the fattened calf (15:23-30).*

아들이 “나는 아들이라 부름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종의 하나로 보소서”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말을 끝내기 전에 “신발을 신겨라” 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만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15:23-30).

Now, here is the, really, the real point of the parable. Though it may teach many things, the parable was intended against the Pharisees. All three actually did, but He is building up. In each of the parables, there is something lost that is found and the result of finding that which was lost was rejoicing, happiness. Jesus receives sinners. That shouldn't be said in a derogatory sense. That should be said in a rejoicing sense. Jesus receives sinners! There is hope, friend. Rejoice! Jesus receives sinners. And yet, they were not saying it with that inflection, but they were saying it in a derogatory sense. “He receives sinners and eats with them.” So as the natural reaction to finding something that is lost should be rejoicing, the Pharisees are angry. They are condemning. They are sitting back and judging. So the story was given.

비유의 실제요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가지를 가르칠수 있으나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을 반박하려고 시도한것입니다. 실제로 세 비유가 다 그러했으나 주께서는 좋은것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세 가지의 비유에서 잃어 버린것이 있고 잃어 버린것을 찾은 결과는 기쁨과 행복입니다. 예수는 죄인들을 영접하십니다. 친구들이여, 소망이 있습니다. 기뻐 하십시오. 예수께서 죄인들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뻐서 하는말이 아니라 경멸하는뜻으로 “그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잃어버린것을 찾는데 대한 당연한 반응은 즐거워 하는것이지만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정죄합니다. 그들은 앉아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In the third story, Jesus adds the older brother and his attitude towards the rejoicing, because the father receives sinners. And here he is out there sulking, angry and upset. He is not going to join in. “You have never done anything like this for me.” And his sulking attitude,

because the father received the sinner. “He went out and spent everything he had on prostitutes. He is a sinner. Yet, you have a big party because he comes home.” This was the same attitude that the Pharisees were expressing.

세번째 이야기에 예수께서 형과 기뻐일에 대한 그의 태도를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형은 뿌루통했고 화가나서 밖에 있었습니다. 그는 들어 가지도 않으려 합니다. “아버지는 내게 한번도 이렇게 해주지 않았습시다.” 그의 태도는 뿌루통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죄인을 받아들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가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창기에 다 쓰버린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돌아왔다고 대 잔치를 배설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나타내는 태도와 똑 같은 것입니다.

To me it is interesting that the father said,

*Son, you are ever with me, and all that I have is yours (15:31).*

You see, the younger son had taken his inheritance, so that everything that was left belonged to the older son. “All that I have is yours.”

*It was necessary that we should have this party, and be glad: for this your brother was dead, and is alive again; and was lost, and is found (15:32).*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 것이 흥미롭습니다.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니라 (15:31).*

아시다시피 젊은 아들은 그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남은 모든 것이 큰 아들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니라.”

Because the Lord receives sinners and eats with them, the lost is found. Jesus said, “I have come to seek and to save that which was lost” (Luke 19:10).

주께서 죄인들을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잡수셨으므로 잃은 자를 찾았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잃어 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 19:10).

So we so often hear marvelous sermons preached from the parable of the prodigal son, but rarely do we ever hear a message that really gives the true meaning of the parable, or the real reason for the parable. The reason wasn't just to show the father receiving with joy a son that was lost, but the parable was used to show the Pharisees how wrong was their condemnation of Him when they said, “He receives sinners and eats with them.” They should have been rejoicing over it, rather than griping over it.

탕자의 비유로 부터 정말 놀라운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참 뜻이나 비유의 참된 이유를 말해 주는 설교는 드물게 듣습니다. 아버지가 잃었던 아들을 기쁘게 받아 주는 것을 보여주게 하는 것이 이유가 아니며 사람들이 “그가 죄인을 받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고

말할때 그들이 주님을 정죄하는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주기위해 비유는 쓰여 졌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물고 뜯기보다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는것이 마땅합니다.

May God help us that we will not have a pharisaical attitude towards the work of God in receiving sinners, because maybe He is receiving them at some other church in the county rather than here. It doesn't matter where He receives them. Let us rejoice that He is receiving them. Let us pray that God will send a great spiritual awakening throughout the county in every church. Let us not be so shortsighted and narrow-minded that we are only praying for God's blessing upon Calvary Chapel, because God knows we can't house them all. But let us begin to really pray that God will revive His church throughout this entire county and that sinners would be brought to Christ, that the Lord might receive sinners anywhere and everywhere, that there might be revival in the Baptist church and the Methodist church, the Lutheran church and the Presbyterian church. Let us just pray that God might just be able to receive sinners in all of these churches, that there would be a real move of God's Spirit throughout the whole area.

죄인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은 태도를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보다 시골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주가 죄인들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어디에서 받으시든지 그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주께서 죄인을 받으시는것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이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영적 각성을 일으키시도록 기도 합시다. 갈보리채플에만 축복하시도록 기도하는 근시안적이고 좁은 마음의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을 다 수용할수 없음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죄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인도되며 주께서 어디에 있는 죄인이든지 받으시도록 침례교회와 감리교회와 루터란 교회와 장로교회와 어떤 교회든지 부흥운동이 일어나도록 정말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의 죄인들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전역에 걸쳐 진정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If we hear of revival somewhere, let us not go and try to find the faults that may exist in their doctrines or positions. "Well, Lord, they didn't follow us so we told them not to do it." Jesus said, "You should not have done that. If they are out there doing it in My name, they can't very well be against us. Don't stop them." God deliver us from narrow sectarianism, from an attitude of the Pharisee, but to the same heart of Jesus. Let us rejoice that the Lord receives sinners and eats with them.

어디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거든 가서 그들의 교리나 위치에 흠을 찾으려고 하지 맙시다. "주님, 그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기에 그들에게 그것을 하지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할걸. 그들이 밖에서 내이름으로 행한다면 우리를 반대하는것이 아닌 중단시키지 말아라"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좁은 당파적 견해와 바리새인적 태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죄인들을 받으시고 함께 식사하시는것을 기뻐합시다.



Shall we pray.

Father, we thank You that You have received us. We've had that glorious joy of eating with You, sitting down, Lord, and partaking of Thee, the Bread of Life. Lord, we pray that today our hearts will be united with Yours, our visions will be united with Yours, and that we, Lord, might come to that place of rejoicing in Thy work wherever it is being done, by whomever it is being done. Lord, keep us from that narrowness that would seek to restrict Your work only in our midst, that would seek to restrict Your blessings only to our fellowship, and may we seek to pray for Your blessings upon all who call upon Your name in truth. In Jesus' name we pray. Amen.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앉아서 생명의 떡을 떼는데 참여하도록 하셔서 같이 떡떼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가졌습니다. 주님, 기도 하옵기는 오늘 저희들의 마음도 시각도 주님과 연합하게 하셔서 주님의 일이 어디서 이루어 지든지 또 누구를 위해서 이루어지든지 기뻐하는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만 이루어지게 제한하고 당신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만 있도록 제한하는 좁은 맘 가지지않게 막아 주시며 진저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이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Next week chapters 16 and 17. Next week in chapter 16, tremendously interesting discussion by Jesus on the subject of Hades. That place that is in the center of the earth. So we will be looking at the subject of Hades next Sunday evening and what Jesus has to say about it in contrast to what the Jehovah Witnesses have to say about it. Then you'll have to determine whether you want to believe Jesus or the Jehovah Witnesses. I've already made my mind up.

다음주에는 16, 1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16장 에는 음부에 관한 예수의 아주 재미있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곳은 지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음부라는 제목과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것과 대조되는 것에 관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당신이 예수를 믿을지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을 믿을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벌써 결정했습니다.

May the Lord be with you now and go before you this week and bless you with His blessings and His love. May He keep His hand upon you and may He guide you in each of the decisions that you'll have to make, that you might be led of the Lord in all things. May the good hand of our Lord be upon you. In Jesus' name.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번주에 주님이 당신보다 앞장서서 가시며 그의 축복과 사랑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손을 얹으셔서 지키시고 당신의 모든 결정에서 인도하시며 모든 일에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